

11/8(수) 열왕기상 6

열왕기상 2:13-2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대로 정적을 제거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제사장 아비아달만 빼고 모두 솔로몬의 군대장관인 브나야에 의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윗의 유언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두 명이나 더 포함되어 있는데 제사장 아비아달과 반역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의 부탁

다윗이 유언에서 반역한 그의 군대장관 요압에 대해서는 평안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사실 반역의 장본인인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살려주게 됩니다. 이는 압살롬의 반역 때도 요압에게 그를 살려두라고 당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도니아를 살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야심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말과 행동이 아도니아의 검은 야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을까요? 첫째로 밋세바의 말에 거짓말로 대답합니다(13절,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밋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밋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라.”**). 여기서 ‘화평’은 ‘샬롬’으로 하나님과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밋세바를 찾아온 것은 실상 화평이 아니라 불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고 백성들도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윗에 이어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던 일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반역에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말대로 온 백성이 그를 따른 것도 아니고 단지 그가 선택한 반역자들에 의해서만 인정을 받았던 일입니다(왕상 1:25,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수와 살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 때 나단과 밋세바의 빠른 조치와 다윗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다행히 반역은 조속히 해결되었지만 만약 시간이 조금만 더 지체되었다면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서 더 큰 고난이 다윗 왕조를 덮치게 되었을 것입니다(왕상 1:49,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의 수하에 들어간 요압도 전쟁과 지략에 능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반역은 쉽게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들을 각기 흩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라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아도니아는 다윗의 여종 수넴 여자 아비삭을 그의 아내로 구하게 됩니다(16-17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저하지 마옵소서 밋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비록 밋세바는 아도니아의 부탁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일을 매우 위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도니아의 검은 속내를 정확히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전임 왕인 다윗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요구한 것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좋아하거나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대답에서 아도니아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이전에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도 다윗의 첩들을 육보인 일이 있었습니다(삼하 16:21,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이같은 일을 행한 것은 그가 왕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의 첩을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후임 왕권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의 이같은 요구는 겉으로는 솔로몬의 왕권 계승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도니아의 요구를 인정한다면 솔로몬의 왕권은 언제든지 아도니아에 의해 또다시 전복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밋세바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게 되고 이를 빌미로 브나야를 통해 아도니아를 처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23-25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야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아도니아는 다윗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실수를 범하게 됨으로써 결국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를 도왔다면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새로운 인생 길도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끝까지 그의 욕심과 야망을 버리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파국을 자초했던 아도니아의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과 삶의 기회를 자기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끊어버리거나 걷어차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버린 탕자가 바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안에서 비롯된 삶의 현실을 비록 힘들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는 어디서나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창 39: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서고 불순종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의 섭리에 겸손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전세계의 난민들을 위한 기도:** 전쟁과 탄압, 가난, 기근 등등으로 인해 전세계에 흩어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들에게 삶의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3. **선교지를 위한 기도:** 최아브라함(파키스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교회를 위한 기도:** 페어필드 2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